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사람과 현장] 고용불안과 횡포를 뚫고 세운 플루이커넥터코리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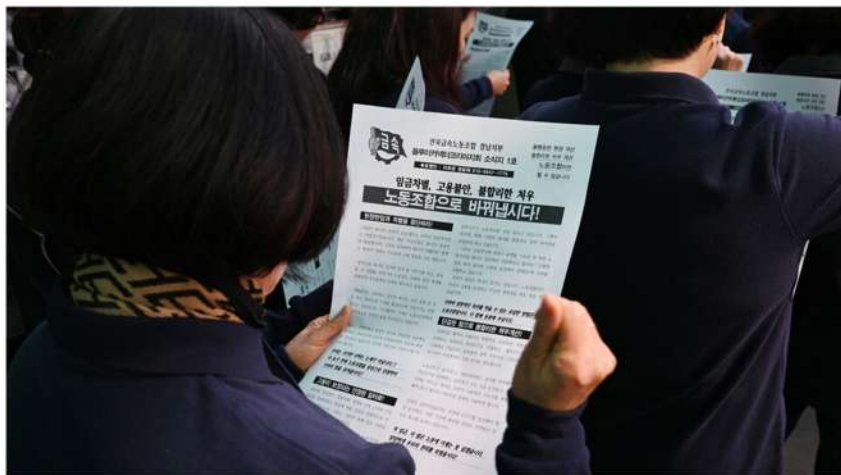
경남 창원공단에 오랜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이 있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건설장비와 커넥터, 건설기계 호스를 만드는 회사다.



받았고, 덕분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지회 설립 보고대회 날에 저를 비롯해 조합원들이 두려움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경남지부와 지역동지들이 함께해줘서 금속의 힘과 동지애를 실감했다” 라면서 “일방통행만 하던 회사가 주춤거리고 지회와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정운해 금속노조 경남지부 플루이커넥터코리아지회장은 “이탈리아 자본의 한국 대표와 관리직의 횡포, 고용불안에 맞서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라고 밝혔다.



성 향상을 핑계로 현장통제와 탄압을 했다” 라고 토로했다.

정운해 지회장은 금속노조 가입 계기에 관해 “회사는 연차 일주일 전 사유서 제출을 강요하고, 건설업 경기 불안을 들먹이며 사측이 일방 무급단축 근무와 무급휴직을 시행했다” 라면서 “인원 축소를 이유로 현장을 압박했다” 라고 덧붙였다.

정운해 지회장은 지회 설립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지원과 지회들의 연대가 큰 힘을 줬다고 했다. 정 지회장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있다는 사실은 지인을 통해서 알았고, 상담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많았다” 라며 “지부 상담 이후 노조 설립과 운영의 기초부터 조직화, 교섭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정운해 지회장은 지회 설립과 동시에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던 요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용불안이 컸고,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라며 “지회 설립에 나선 여덟 명의 의지와 분노가 컸고, 초동주체들이 조·반장들이라 현장 노동자들의 신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라고 분석했다.

정운해 지회장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 보게 만들 정도로 생산

정 지회장은 지부 미조직부서와

지부 동지들의 지원이 많은 힘이 됐고, 미리 준비한 조직화 순서와 교육 프로그램 등 치밀한 계획과 맞춤형 전략이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운해 지회장은 지회 설립 총회 대회사 발언 순간이 살면서 가장 가슴 벅차고 떨리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정 지회장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지역 동지들과 조합원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라면서 “설립보고 대회에 전체 조합원 중 90% 이상이 참여한 장면을 보면서 플루이커넥티코리아에 봄날이 오는구나 싶었고, 나 자신도 한판 해보자는 투쟁의 의지가 불타올랐다” 라고 전했다.

정운해 지회장은 “설립보고 대회에 90% 이상 조합원이 참석했고, 응원과 함께 조합가입을 문의하는 사무직과 여성사원들을 보면서 전체 사원이 참여하는 지회 구성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라며 “보고대회 다음날 현장 순회에서 ‘우리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다’ 라며 좋아하는 조합원을 잇을 수 없다. 이제 금속노조가 자연스럽게 현장순회를 할 수 있고, 저도 생산보다 사람을 더 챙길 수 있는 현실이 아직도 꿈 같다” 라고 기뻐했다.

지회는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끝나 교섭대표노조가 됐고, 사측과 기본협약 교섭을 하고 있다. 회사는 기업의 존폐와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지회 사무실과 집기 지원 등은 동의한 상태다.



지회는 단체교섭 요구안 조합원 설명회를 마쳤고, 요구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회를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 조직 사업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간부역량 강화와 투쟁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사측은 여전히 회사 운영과 노동조건 저하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지회는 맞서 싸우고 있다.

정운해 지회장은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려 하고 현장 압박은 줄어들었다” 라면서 “사측의 현장 통제와 관리직 눈치에 움츠러든 조합원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나

고, 쌓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요구를 밝히는 등 현장 분위기가 자유롭게 확 바뀌고 있다. 금속노조 조기가 자랑스럽다” 라며 웃었다.

정운해 지회장은 창원공단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정 지회장은 “출근이 즐거워졌다. 금속노조의 깃발을 올곧게 세워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라며 “자본의 탄압과 횡포에 망설이고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라고 주먹을 움켜쥐었다.